

지역 소식 통

고창군 복분자 · 수박

축제, 6월20일부터 개최

고창복분자와수박축제위원회(위원장 이미정)가 '제22회 고창복분자와수박축제'를 6월20일부터 6월22일까지 3일간 선운산도립공원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창복분자와수박축제는 고창군 여름철 대표축제다. 지난해 축제 때는 농산물 판매뿐만 아니라 장어잡기, 장어판매 행사 등을 추가해 약 17만명이 방문해 약 51억원의 경제유발효과를 거뒀다.

올해 역시 시종보다 저렴한 가격에 복분자, 수박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농특산물(수박, 복분자, 장어 등)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미정 축제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로 22회차를 맞는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가 매년 발전하며 고창군의 대표 농특산물 축제로 자리잡고 있다"며 "고창 복분자와 수박의 우수성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 성공적인 개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지역 5개 해수욕장

7월 4일~8월 17일 개장

변산 · 격포 · 고사포 · 모항 · 위도해수욕장 등 부안지역 5개 해수욕장이 오는 7월 4일부터 8월 17일까지 45일간 개장한다.

부안군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해수욕장협의회를 개최하고 개장기간과 안전관리 등 해수욕장 주요 운영 · 관리 사항을 심의 ·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권익현 부안군수 주재하에 부안경찰서와 부안해양경찰서, 부안소방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주기상지청, 부안교육지원청,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안구조대, 해병대 부안전우회 변산면 모항마을 등 관계기관 및 단체들이 참석해 해수욕장 개장과 운영 ·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는 해수욕장 개장기간을 7월 4일부터 8월 17일까지 45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장하기로 결정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국가철도망 반영 공동성명서 발표

호남 5개 시 · 군의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해안 지역 반영해 줄 것"

고창군의회의장 조만규)을 비롯한 호남의 서해안 주요 거점 지역인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현, 함평군의회의장 이남오) 의장들은 27일 고창읍주민행복센터에서 '서해안(새만금~북포) 철도 건설사업,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서는 서해안 중심의 남북축 연결을 위한 핵심사업인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5개 시 · 군의회가 공동 대응하기 위해 고창군의회의장(의장 조만규)가 마련하였다.

현재 국가철도망은 한반도의 동해와 남해, 서해를 연결할 U자형 철도망 중 유일하게 전북과 전남 구간만 단절된



상태이다.

한계 모인 의장들은 "현재 국가철도망 계획은 호남민의 철도 이용 기회와 권리를 빼앗고 균형 발전을 저해하며 우리 지역을 소멸시키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완성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해안 지역을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창군의회의장 조만규 의장은 "서해안 철도가 구축되면 지역간 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물류의 효율성 향상, 환경해권시대에 호남지역의 첨단산업 발전, 그리고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반값 기차여행’ ... 정읍시, 내 나라 여행박람회 출격

강남 SETEC서 30일까지 관광명소 알리기 등 수도권 관광객 유치 ‘총력’

정읍과 고창, 부안이 힘을 합쳐 수도권 관광객 잡기에 나섰다. 세 도시가 뭉친 서남권관광행정협의회(이하 서남권협의회)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개최되는 '2025년 내 나라 여행 박람회'에 참가해 공동 홍보에 나선다.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내 나라 여행 박람회는 지난 2004년 처음 개최된 이후 누적 방문객 220만 명을 기록한 국내 대표 여행 박람회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의 120개 기관과 관광사업체들이 참여 총 280여 개의 부스를 운영, 각 지역의 관광 명소를 홍보한다.

서남권협의회는 정읍 · 고창 · 부안 각 지자체의 관광 매력을 한데 모아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박람회 현장을 찾는 수도권 관광객을 겨냥해 관광사진과 영상 등 다양한 홍보자료를 준



비했고, 매일 세 차례씩 이벤트를 열어 방문객들에게 푸짐한 선물도 나눠줄 예정이다.

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지역 특산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참여자에게는 기념배지와 귀리

쌀강정, 기념엽서와 귀리(80g), 복분자 미니어처 등이 제공된다. 특히 매회 이벤트에 참여한 방문객 중 1명을 추첨해 복분자 선물세트와 귀리세트 등 특별한 선물도 증정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4억4000만원 투입 중소기업 지원 확대

부안군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총 4억4000만원을 투입해 복지편익 · 근로환경 개선사업 및 기술사 입차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관내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 한도의 시설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환경개선사

업과 기술사1실당 월 임차료 최대 20만원 한도 내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을 선정한 계획으로 관내 연매출 기준 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며 기업 대

출금의 이자 보전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자금 지원사업도 적극 실시한다.

이와 관련 공금한 사항이 있는 기업은 부안군청 지역경제과 ☎ 063-580-4230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행정 · 주민교류 · 문화교육 한곳에서

고창군, 신림면 행정문화복합센터 기공식 열려

고창군 신림면의 행정 · 소통 거점 공간이 될 '행정문화복합센터'가 첫 삽을 떴다.

27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신림면 무림리에서 신림면 행정문화복합센터 기공식이 열렸다.

행사는 신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주민위원회(위원장 유종팔) 주관으로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고창군의회의장 조만규 군의장 및 군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300여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신림면 종합복지회관 뒤편에 지어지는 '행정문화복합센터'는 총 6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2026년 4월 준공 예정이다.

연면적 988㎡ 규모의 2층 건물로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공유주방, 동아리실, 다목적강당 등 지역주민이 자유

롭게 소통하고 이용하는 복합적인 시설로 활용될 계획이다.

특히 신림 외곽에 있고 낡고 비좁았던 기존의 신림면 행정복지센터가 은행과 보건지소가 있는 중심지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이 행정 · 문화 · 복지 · 금융 · 체육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도보 5분내 해결하면서 신림면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오늘 기공식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신 추진위원들과 지역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읍 · 면 특성에 맞는 사업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변화와 성장으로 미래를 여는 고창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의의회, 여성단체협의회와 간담회 개최

부안군의의회(의장 박병래)는 지난 26일 의정실에서 부안군 여성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병래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부안군 여성단체협의회 박양순 회장을 포함한 주요 여성단체 대표들이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여성단체 대표들을 통해 여성단체 회원들의 주요 활동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여성단체 회원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할 방안을 모색했다.



박병래 의장은 "여성단체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군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여성단체 회원들의 다양한 봉사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학자금 장기연체 청년 신용회복 지원

정읍시가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신용유리지에 등록된 청년의 경제활동 재기를 돕기 위해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용유리지자가 되면 카드 사용과 대출 제한은 물론 일부 금융기관 관련 직장 취업에도 제약이 생긴다. 시는 학자금 상환 부담으로 사회 진입부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해당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았으나 장기 연체로 신용 위기에 놓인 청년들에게 시가 분할상환 일정 체결에 필요한 초입금(채무원금의 10%,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

하는 내용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이를 통해 신용도 판단정보를 해제하고,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감면해준다. 분할상환 기간은 채무액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초입금 지원율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해 운영하며, 10% 전액을 납부하면 지연배상금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상 45세 이하이면서 한국장학재단에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록된 청년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말까지며, 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